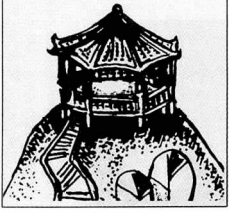


八角亭



白頭山 紀行

鄭 永 得

9월 1일 20시 金浦空港을 出發한 우리들 국립공원협회 白頭山 探訪團 一行은 꼭 2時間 40 분만에 北京空港에 到着하였다. 北京의 거리는 전등불은 켜 있어도 우리나라처럼 그리 밝지는 못했다. 버스로 달려 到着한 곳이 큼직하고 웅장한 新萬壽賓館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잤던 탓인지 밤에 잠이 통 오지않아 내내 백두산에 관한 생각만 했다. “왜 우리나라 白頭山을 中國을 거쳐서만 가야하는가? 참으로 원통한 일이다. 통일의 날은 언제 오려나...”

이튿날 우리는 白頭山 가는 일정 사이에 北京 근처의 名所를 觀光기로 하였다. 北京 西北쪽으로 約50km 地点에 영락제로부터 崇禎皇帝까지의 13皇帝陵墓가 있으니 “明十三陵”이라 일컫는다. 明太祖 주원장의 능묘는 南京에 있다. 영락제때 수도를 北京으로 옮겼기 때문이라 한다. 13陵 가운데 가장 크고 오랜陵이 長陵인데 명나라 제13대 황제인 英락제의 능묘이다. 地下宮殿은 아직 손을 대지 않고 있어 神秘로움이 더 했다. 능원안에는 여러가지 植物이 심어져 있는데 九花柏 白松 牧円이 많았다. 찬란한 꽃색을 보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다음은 萬里長城으로 옮겼다. 달(月)에서 보이는 유일한 人工物이라는 이 만리장성은 古代 中國에서는 군사용 장벽이었지만 지금은 中國을 대표하는 觀光명소이다. 기원전 7C 춘추전국시대에 이미 출현하여 그때는 제(齊) 장성이라고 불리웠고 그후 楚, 奏, 燕, 越 등 나라들이 北方 소수민족의 침입을 막기위해서 장성을 쌓았다고 한다. 진시황이 그것을 연결한 것이다. 奏始皇은

홍노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감숙성에서 黃河의 북쪽끝에 이르는 대장성을 수축했다. 이어서 漢武帝가 기원전 2세기말 난주의 북쪽에서 서쪽 옥문관까지 장성을 연장시켰다. 산해관에서 가곡관에 이르는 8,700km의 장성이 완전히 이룩된 것은 明代에 이르러서였다고 한다. 팔달령은 명나라때 개축됐는데 지금 남아 있는 만리장성 중에서 가장 보존상태가 좋고 북경에서 70km 밖에 되지 않아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었다. 팔달령 장성의 높이는 8.5m 폭은 5.7m이고 양쪽벽 사이로 말 몇마리가 나란히 서서 달릴수 있고 또 일정한 거리마다 2층의 성루가 있었다. 성루의 아래층은 수십명의 병사가 주둔할 수 있게 돼있고 윗층은 관측소로 활용했다고 한다. 또 성벽 뒷길에는 용통(甬通)이라는 연락통로가 있는데 약 110m마다 돈대(墩臺)라는 봉화대가 있다. 이 봉화대 위에서 내몽고를 바라보는 경치는 그야말로 장관이다.

다음날 우리는 明·淸時代에 황제가 天神에게 제사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던 곳인 天壇을 방문하였다. 淸의 英락제가 세웠고 淸의 건륭제가 개축했다고 한다. 고궁을 중심으로 日壇, 月壇, 天壇, 地壇이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 각각 그 이름에 해당하는 신들을 봉사하며 天壇은 天神을 받든다. 天壇의 둘레는 약 6km로 고궁의 3배가량되며 지금은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北京 서북쪽 16km 지점에 있는 큰 공원인 “이화원”에도 들렸다. 淸대에는 여름 별궁으로 사용되었던 곳인데 총면적은 267ha에 이른다. 中國의 가장 큰 고대 황실의 苑林地대이다. 남쪽



에 있는 “공명호”라는 인공연못이 전체 면적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었다. 북쪽에는 공명호를 만들때 파낸 흙으로 쌓아 조성했다는 萬壽山이 있는데 주변은 모두 벽으로 둘러 쌓여 있었다. 만수산 기슭에 펼쳐지는 누각, 전당, 회랑다리는 모두 농치기 아까운 볼거리였다. 이 화원은 금나라때 확장공사를 하였으나 1860년 英佛연합군의 침략과 약탈로 인해 건물이 크게 파손되고 보물도 대부분 소실됐다고 하며 그 후 西太后가 이곳을 자신의 은신처로 삼으려고 대규모 재건 공사를 벌였으나 해군군비 3,000만냥을 쏟아부어 청의 멸망을 재촉하는 결과를 빚었다. 이 화원의 건물들은 중국전통 건축의 명품으로 손꼽힌다. 호수의 물은 1년에 두번씩 갈아 준다고 한다.

서태후가 정무를 맡아보던 곳이었다는 인수전에는 그가 쓰던 보좌와 편목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우리는 버루고 버루던 白頭山探訪길에 올랐

다. 北京에서 항공기로 2시간 걸려 연길에 도착하자 연변대학 地理系 張三煥教授와 함께 白頭山行 버스에 탑승하고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를 무려 6시간을 달려 白頭山 入口에 도착하였다. 안내원의 여러 명소에 대한 설명과 張教授님의 白頭山의 植物生態系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창밖으로 산야의 경치를 바라보며 지루한줄을 몰랐다. 날씨가 화창하여 오늘은 天池를 구경하기에 꼭 알맞다고 안내원은 장담한다. 먼저갔던 관광객이 내려오면서 천지를 구경했다기에 잔뜩 기대에 부푼마음으로 70모퉁이를 돌고 돌아 올라가니 아니나 다를까 물안개와 강풍이 불어 자 같이 날리고 사람이 날릴정도라 현기증이 나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흐릿해지는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기다렸으나 날씨는 좋아지지 않았다. 아쉬움을 남기면서 오늘은 허무하게 되돌아오게 되었다. 백두산 천지호텔에 투숙하며 오래도록 그리워했던 백두산천지이기에 다음날 또 오르기로 다짐했다.

다음날 잠이 깨자마자 밖으로 나가 하늘부터 쳐다 보았다. 또 흐린날씨였다. 식전에 여러가지 구경을 하고 사진을 촬영했다. 아침밥을 먹고 백두산에 오르기 전에 우선 장백산 폭포로 갔다. 온천장을 지나 계곡을 오르는데 수해로 인해 길은 돌밭으로 변해 있었다. 길 옆으로 물이 흘러 내려오는데 바윗돌 사이로 흐르는 여러갈래의 물과 물이 어울리어 한폭의 그림같았다. 한참갔더니 온천물이 나오는데 손을 넣어본즉 굉장히 뜨거웠다. 달걀을 넣어놓고 팔고 있었다. 이 달걀은 보통 물에 삶는것과 달리 속부터 익어나온다기에 사먹어 보니 과연 노란자위는 완전히 익었는데 흰자는 덜 익었다. 3개를 먹어보아도 모두 똑같았다. 70~80°의 수온이라했다. 일기의 변동이 하도 심하여 폭포도 보이지 않더니 30초도 안되는 사이에 폭포의 물줄기가 환히 보였다. 사진 한번 찍는 사이에 또 물안개가 덮였다. 내려오는길에 관광객 한 분이 풀밭에 소변을 보다가 감시원에게 발견되어 벌금으로 중국돈 5원을 냈다고 하였다.

또 천지를 향하여 셔틀버스를 타고 올라갔으나 역시 천지의 물을 볼 수 없었다. 1년 365일 중 300일은 거의 비만 오는 날이라 하니 확실하게 천지를 못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인것 같기도 하다. 이 신성한 백두산천지가 국경소속이 아리송한것은 참으로 유감이었다. 비통한 노

릇이다. 백두산의 16개 봉우리중 병사봉을 비롯한 7개 봉우리가 북한쪽에 솟았고 병사봉에 버금가는 백운봉과 천운봉등 9개 봉우리는 중국땅에 소속되어 있었다. 천지는 일명 용왕담(龍王潭)이라고도 일컬어지며 해발 2,155m에 자리하고 있다. 남북길이 4.55km에 동서로는 3.35km 최고수심은 384m로 알려져 있다.

산상호수의 최저기온은 영하 47.5도이며 최고기온은 영상 18도이고 최고풍속은 초속 60m(나무뿌리를 뽑아 낼 정도)라고 하며 강수량은 제주도와 거의 맞먹는 연평균 1,400mm라 한다.

휴화산이라하나 현재에도 85도 정도의 온천이 솟아나고 있으며 분기공(噴氣孔)에서는 간헐적으로나마 깨스가 분출되고 또한 소규모의 지진과 산지사면의 붕괴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활화산이라 할 수도 있다한다.

9월말에서 다음해 6월중순까지 내내 눈에 덮여있다고 하며 천지를 기점으로 하여 남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 서쪽으로 송화강이 흐르고 있다. 백두산에서 하산하면서 바라본 군데군데의 촌락은 옥수수, 콩, 쌀이 주농인듯 하며 간혹 조 기장도 보였다. 초가와 스테트집이 섞여 있었으며 한가로이 소가 풀을 뜯고 있는가 하면 담장과 지붕에 누린 호박과 하얀 박이 탐스럽게 열려 있었다. 평화로운 시골풍경이었다.

[본회八公山支部事務局長]

“八角亭”은 會員여러분과 讀者여러분의 쉼터요. 토론장이다. 自然을 사랑하고 畏敬하는 녹색운동에 참여하는 이의 거침김없는 提言과 熱情의 글월을 기다린다. <200자 원고지 5매 내지 10매이내>